



## 한 청장 3선 도전여부 최대 변수... 與野 접전

[대전 동구청장 누가 뭐래]

“보수성향 표심 흔들릴 가능성... 동구의 민심, 향후 지방선거 영향”

내년 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지역정치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5개 구청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현 구청장들의 재선, 3선 도전의 관심 속에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가세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선거가 예상된다. 이에 분지에서는 5차례에 걸쳐 대전지역 5개 구청장 출마 후보군을 살펴본다.

◆한 청장의 3선도전이나 대전 시장 출마

대전역, 대전IC, 대전북합터미널 등이 입지해 대전의 관문으로 알려진 동구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의 민심이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 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론도 팽배해 주민들의 민심 변화가 엇비슷하다.

내년 동구청장의 관전포인트는 한현택 현 동구청장의 3선 도전여부이다. 아직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대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당 소속 단체장으로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커리어가 있어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현재 국민의당-바른정당 간의 연대합일 결과도 향후 동구청장 선거의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현재 동구청장 후보군에는 자천타천 8명의 후보가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윤기식·황인호 대전시의원, 이희관 전 동구 자치행정국장 등 4명이 거론된다.

특히 윤 의원과 황 의원은 다선 구의원 경력을 토대로 탄탄한 지지층이 결집돼 있어 접전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선 송석락 전 동구의회 의장과 성선제 고려대 초빙교수가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한 청장이 유력하나 향후 대전시장에 출마할 경우 변수도 있다. 바른정당에서 인필용 대전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으로 지역구를 중심으로 인지도 끌어올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동구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다.

현재로서는 재선의 한 청장이 지명이나 조직에서 다른 후보군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현 중앙정치의 흐름상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당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은 한 청장으로서의 여전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동구 주민 A씨(36·삼성동·회사원)는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을 지닌 동구지역이라 할지라도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수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어느정도 보수성향의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64·가양동·지역업)는 “동구는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방보수 성향의 표심이 매우 강한 만큼 내년에 보수정당의 약진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보수성향의 정당들이 어떠한 정치를 펼치느냐에 따라 향후 표심이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동구의 민심을 가늠하기 어렵다. 한 청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따라 정당의 이해득실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동구의 민심이 향후 지방선거의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충청권 광역철도 운영주체는 국가가 맡아야”

대전시 국회 토론회 개최

대전광역시시는 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광역철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를 국가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한 정용기 의원, 박덕홍 의원, 이장우 의원을 비롯한 정우택 원내대표, 손명수 국토부 철도정책국장, 임철순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성영석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태수 한국철도공사 사장, 권태명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 이웅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이양하 대전도시철도공사 연구개발

발원장, 철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철순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충청권 광역철도는 향후 논산에서 청주공항까지 달리는 철도로서 4개 시도를 거쳐 106.9km를 운행하게 되는 국가시설의 광역교통시설로서 국가철도망 역할을 수행하는 점과 안전 및 재난관리 측면을 보면 동일한 노선에 시설관리 및 운영 주체의 이원화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약화 우려 및 책임소재 불분명하여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철도 업무지침상 연장선, 신설선은 국가가 시행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존선

개발형의 경우는 국가시행하고 지자체 운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해 광역철도 관련 규정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TF팀을 구성해 관련지침 개정을 포함한 광역철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관련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시는 2021년부터 대구권 광역철도를 운영 예정인 대구광역시 및 국토부와의 협력해 충청권 광역철도가 합리적 운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 최근 4년간 충남지역 노인실종·자살 등 증가

사회안전망의 부재에 대한 경찰의 대책 요구

충남 지역의 노인 실종, 자살, 고독사 등 이른바 ‘노인 소외’ 현상이 계속 발생해, 사회안전망의 부재에 대한 경찰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충남 지역의 노인 실종,

자살,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노병화에 따라 충남청은 지난 2012년부터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예약순찰제, 안전 귀가 서비스 등 시책을 추진해 노인범죄, 사고, 독거노인 증가 등에 대처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실종, 자살, 고독사 등 사회에서 멀어진 노인

에게 주로 발생하는 ‘노인 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치매환자의 실종신고 접수건수는 2013년 261명, 2014년 208명, 2015년 280명, 2016년 276명으로 2백여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4년간 전체 9명의 미발견 인연 중 4명이 치매환자였다. 인지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단순 거를 노인의 신고접수건수는 2013년 170명에서 2016년 23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충남의 4년간 전체 자살자는 3,186명인 가운데, 노인 자살자가 1,269명으로 39%를 차지했다. 특히 적극적인 노인대책 시행에도 전체 자살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39명, 42%에서 2016년 302명, 39%로 유의미한 감소는 보이지 않아, 여전히 노인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사회와 차단된 채 쓸쓸히 죽어가는 고독사 역시 늘고 있다. 충남의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는 2013년 14명, 2014년 18명, 2015년 18명, 2016년 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율로도 2013년 285%에서 2014년 45.0%, 2015년 42.8%까지 치솟았다가 2016년 33.3%를 기록해, 여전히 무연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충남경찰은 노인 대상 범죄, 교통사고 등 노인 안전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충남경찰은 노인들이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 아산시·서울특별시 우호 교류협약 체결

상생발전 위한 약속·박 시장의 강연도 가져



충청남도 아산시(시장 박기왕)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1일, 아산시청 상환실에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두 도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 아산시와 서울특별시는 ▲청년 자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간 협

약 ▲지역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갈등관리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공유·협력 ▲도시재생 관련 우수사례 공유·교류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협력과제로 정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과 발전을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분권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박기왕 아산시장과 양 도시 발전을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며, “금번 충남 아산시의 서울특별시 간 약속이 왕성한 교류·협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왕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가장 큰 지방정부를 이끌고 계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아산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협약을 계기로 우수정책은 나누고, 어려운 점은 자문하면서 두 도시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협약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500여 아산시민과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권과 혁신, 더 나은 시민의 삶! 서울시와 아산시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 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참석한 시민과 공직자와의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산-리량주 기자

### 천안풍세천 철새분변 AI검출... 고병원성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충남 천안 풍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

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에 철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선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올해 10월 이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총 44건이다. 이 중 전남 순천만과 제주 하도리 등 2건에 대해서 고병원성 H5N6형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38건은 음성 혹은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날 바이러스가 확인된 풍세천 등 4건에 대해서 고병원성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 가금류 사육농가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 1건이다. 김태선 기자



# 정당지지도, 민주52% > 한국20% > 바른7% > 국민6% > 정의5%

## <리서치뷰>조사결과... 文대통령 지지율 70%, 민주 52% 3개월만 동반상승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11월말 정기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전월 대비 4%p 상승한 70%로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정당 지지도와 내년 광역단체장 정당후보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동반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평가는 '잘함' 70% 매우 48%, 다소 22% vs '잘못함' 25%(다소 10%, 매우 15%)로, 긍정평가가 2.8배 가량인 45%p 가량 높았으며(대응답: 5%). 10월말 대비 긍정률(66% → 70%)은 4%p 상승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고, 부정률(29% → 25%)은 4%p 하락했다.

계층별로 ▲남성(잘함 69% vs 잘못함 27%) ▲여성(71% vs 22%) ▲19/20대(81% vs 15%) ▲30대(82% vs 16%) ▲40대(81% vs

17%) ▲50대(59% vs 36%) ▲60대(57% vs 36%) ▲70대(50% vs 34%) ▲서울(68% vs 26%) ▲경기/인천(73% vs 23%) ▲충청(60% vs 33%) ▲호남(89% vs 9%) ▲대구/경북(60% vs 31%) ▲부산/울산/경남(68% vs 29%) ▲강원/제주(68% vs 20%) 등 대부분 계층에서 긍정률이 상승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잘함 45% vs 잘못함 49%)은 부정평가가 3%p 높은 반면, ▲진보층(91% vs 7%)에서는 긍정평가가 13.1배나 높았다.

2018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대비 3%p 오른 53%로 초강세를 이어갔다.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20%) ▲국민의당(5%) ▲바른정당(5%) ▲정의당(3%) 등으로 나타났다(기타/무응답: 14%).

권역별로 ▲서울(민주 52% vs 한국 20%) ▲경기/인천(58% vs 19%) ▲충청(49% vs 23%) ▲부산/울산/경남(52% vs 20%) ▲강원/제주(44% vs 33%)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압도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구/경북(민주 32% vs 한국 35%)에서 3%p 소폭 앞섰고, ▲호남(민주 73% vs 국민 13%)은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60%p 앞서며 격차를 더 벌였다.

정당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52%로, 19대 대선 이후 7개월 연속 50%대를 이어갔다.

뒤를 이어 ▲한국당(20%) ▲바른정당(7%) ▲국민의당(6%) ▲정의당(5%) 순으로 나타났다(기타/무당층: 8%). 10월말 대비 민주당·한국당·바른정당은 각각 1%p 동반상승한 반면, 국민의당과 정

의당은 1%p씩 하락했다.

권역별로 ▲서울(민주 48% vs 한국 21%) ▲경기/인천(55% vs 19%) ▲충청(51% vs 18%) ▲대구/경북(35% vs 34%) ▲부산/울산/경남(53% vs 23%) ▲강원/제주(48% vs 22%) 모두 민주당이 한국당을 앞섰고, ▲호남(민주 72% vs 국민 13%)은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59%p 차로 압도했다.

이 조사는 11월 29-30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35명(무선 85%, 유선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결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0%p,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 청양군의회, 조례안 31건 상임위원회 통과

17년도 3회 추경안 및 18년도 예산안심사본격 시작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는 지난 3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31건을 본회의

장에서 원안기결 처리했다.

세부 내용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안건 ▲청양군 고문번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 ▲청양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도 군정연설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2월 13일까지며,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 여기구 의원,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

여기구의원 비롯한 여의의원 33명 수상자 선정



여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이 지난 1일 (제)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5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 상'을 수상했다.

(제)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는 인터넷 세상에서 아름다운 글과 말을 통해 사회에 긍정 에너지를 전파시키기 위한 선플달기 운동

과 청소년 인성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선플상은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상은 237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두 달간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여기구 의원을 비롯한 여의 의원 3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여기구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누구보다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고 뿌려주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통해 국회에서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투명·효율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투명성 등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사천)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

치 및 운영 조례'를 원안 기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를 설치·구성할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1인이 각종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연임을 규제하는 등 부패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또 모든 회의록 도민에게 공

개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있게 위원회를 운영토록했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약 80여개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위원회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설치조건이나 운영 등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통일된 운영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제광 의원, 원도심활성화 위해 '꽃' 축제 제안

원도심활성화방안으로 중구청 주변 꽃 축제 촉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 하재봉)는 12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홍순국 의원 등 3명의 구정질문에 대한 박용갑 구청장 답변과 문제광 의원의 원도심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 '꽃' 축제 개최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토요일 마당, 음악회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갑 구청장은 전날 홍순국 의원 구정질문에 대해 "산성시장 추가 아케이드 설치는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하고 산성시장 뒤쪽 쓰레기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 가능한 부분부터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와 잔디 교체는 예산 형평성을 고려 연차적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광 의원의 뿌리공원 산수유나무 식재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비좁나무를 산팍나무로 교체에 대해 박용갑 구청장은 뿌리공원에 추가로 산수유 나무를 식재하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비좁나무 교체는 생육이 건장한 나무는 존치하고 구간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경성의 자리 마련

경성의 자리 마련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 박찬우)은 자유한국당을 향한 촛소리, 아픈 소리, 거슬리는 소리를 들는 경성의 자리를 마련했다. 4일 오후 2시 충남도당(사천) 회의실에서, 박찬우 충남도당위원장 및 이창수 천안갑 당협위원장, 이진영 아산 당협위원장과 지방의회의원 및 주요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 말한다'는 제목으로 지역연론인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인의 시각에서 충남 지역의 민심의 흐름과 여론의 향방을 진단하고(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도민들의 신뢰와 관심을 되찾기 위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충남도민들이 우리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정치 풍토에 적응하고, 수준 높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조언이 있을 예정이다.

##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플뿌리자치대상 수상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지난 달 30일, 세종·충남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2017 플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의정발전부 상을 수상했다.

이영해 의원은 조선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주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동료의원들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교통정책분야, 아동·청소년 정책, 교육정책 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고 5분 발언 등 소외계층의 아픔에 적극적인 따뜻한 의정활동과 정책제안, 글로컬기초행복로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들이 인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서미경 의원, 2017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

조례입안과 지역정책 기여도 인정받아



대전시 대덕구의회(의장 박종희) 서미경 의원은 11월 30일 국

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서미경 의원은 "수상의 영광을 대덕구민 여러분에게 돌리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대덕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 "교육부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 환영"

'학습중심 현장실습' 전환 결정... 김지철 교육감 적극 환영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1일 "교육부가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키로 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충남교육청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취업 유관기관, 기업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습중심 고졸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후속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그간 추진해온 오작교 프로젝트 등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범 순

영을 확대 시행하고, 산업 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및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학생의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율러 "내내 기업체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고졸 취업 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민주의거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신장을 위한 대전지역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이 있었다.며, "3·8민주의거'라 불리게 된 이 날의 의거는 대전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000여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유혈사태를 빚게 됐고, 이 사건은 대구 2·28의거와 함께 3·15의거와 4·19혁명의 기록제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항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에 '3·8민주의거'의 뜻 깊은 역사를 재조명하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밝은 미래를 위한 초심으로 삼기 위해 정부에 국가기념일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 보령시의회 박상배 의장,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대상'



보령시의회 박상배 의장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

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7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헌







전북향우회 이갑상 초대 회장 취임식 열려

# “한마음 한 뜻으로 봉사... 충청지역 발전”

재 대전·세종·충남 전북 향우회의 창립식과 초대 회장 취임식이 2017.12.02.(토) 오후2시 TBN대전교통방송 공개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전북 향우회 창립식에는 내외 귀빈과 전북 향우회원 등이 참석하였다.

전북향우회 초대 회장으로 이갑상씨가 취임했다. 이갑상 회장은 전북 전주출신으로 전주 송전초등학교, 전주 서중학교, 전주 영생고등학교,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경제학석사)까지 졸업 전주에서 수학 하였으며,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37년간 군에 복무하였으며 2급이사관으로 퇴직하였다. 현재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인전문화관리협회 회장과 충청남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갑상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전·세종·충남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북의 향우들이 애郷심을 갖고 친목도모와 우의를 다지고, 전북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며, 향우회를 통하여 전라북도도 한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돕겠다는 포부와 향우회원이 상호협력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 제 2의 고향인 충청지역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북인이 되어 고향과 종전의 고향인 충청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북향우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향우회장이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북향우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라북도를 한국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향우들이 다 함께 노력 하라고 당부하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전북향우회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향우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김태선 기자



취/임/사

이갑상 재 대전·세종·충남 전북향우회 회장



오늘 재 대전·세종·충남의 전북향우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갑상

입니다.

재 대전·세종·충남 전북향우회 창립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과, 전북향우회원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의 고향, 전라북도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들이 넓어서, 살기 좋고 인심이 넉넉한 고장으로, 학문과 기상이 드높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길러내고 배출한, 한국 속의 한국으로, 아직도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고향입니다.

니다.

고향 전북에서 태어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대전·세종·충남의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계신, 전북 출신의 훌륭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향우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의를 다지고, 향우회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애郷심을 공유하고, 전북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전북인이 되어야, 고향도 발전하고 종전의 고향인 충청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전북향우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전북향우회장이란 중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력하나마 전북향우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향우회의 발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유관 단체와 잘 협력하여,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향우회원들의 뜻에 부응해, 협력하고 발전하는, 활력이 넘치는 향우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배님들과 소통하면서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전북향우회의 위상을 높이며, 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이자,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과 후배님들이 가까이 계시기에, 든든하고 견고한 모임이 되리라 굳게 믿으면서, 향우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이제 첫발을 내디딘 우리 전북향우회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과 향우회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은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신뢰를 받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생활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 공주시 이인농협 산지유통센터 준공

## GAP시설 갖춘 현대식 건물로 강남지역 농산물 거점 역할 기대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달 30일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농협 관계자, 기관·단체장, 농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인농협 산지유통시설(APC) 준공식을 가졌다.

민선6기 오시덕 시장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농산물유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건립된 이인농협 산지유통시설(APC)은 총 사업비 13억 8천만원(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 자부담 8억 8천만원)이 투입돼 4784㎡ 부지에 건축면적 1459㎡의 규모로 지어졌다.

GAP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농산물 집하·선별 작업장(935㎡), 저온저장고(200㎡), 선별기 1호 등의 시설이 들



어서 있으며, 앞으로 토마토, 오이, 밤 등 지역농산물 1천여 톤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이인농협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의 농산물유통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강남지역 농산물 유통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홍숙 농정유통과장은 "이와 더불어 농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해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에서 GS티에이를 비롯한 대량소매시장으로의 유통경로 다변화를 확보하는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청양군 칠갑산 아흔아홉골 편백나무 비료주기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대치면 장곡리 아흔아홉골에서 군청 공무원, 산림조합 직원, 장곡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식목일 행사 시 식재한 편백나무 1500주에 비료를 주고 주변 정화활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도시녹화운동 및 산불방지 캠페인을 병행 실시해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를 가졌다. 군은 자연 자원이 풍부한 칠갑산 장곡리 아흔아홉골에 연차적으로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 숲의 가치를 보전하고

미래세대 지속발전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석화 군수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숲을 가꾸고 병해충, 산불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라며 "미래 자원이 산림의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1298ha의 산림에 22억여원을 투자해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취약지 및 주요 등산로변 산불감시와 산불예방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불 제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 국립중자원 올해비 보급종 신청접수 상량·친들벼 등 8개 품종 신청 공고

국립중자원 충남지원(원장 변동주)은 12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17년산 벼 정부보급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이 가능한 품종은 상량, 친들, 새누리, 새일미, 운광, 추청, 동진찰, 고시히카리모 모두 8개 품종이며, 신청가능량은 정부지원RPC 등에 우선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2,568톤이다. 신청된 벼 정부보급종은 18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된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은 엄격한 종자검사와 품질관리 등을 거쳐 합격한 우량종자로 종자의 발아율이 높고 품종고유의 특성이 유지된다.

변동주 충남지원장은 "금년도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다수확 품종인 새누리, 새일미, 운광벼의 공급량이 조정되었기에 신청 시 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정부보급종 신청과 관련된 문의 및 벼 보급종 품종별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자원 충남지원(041-541-6646)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청양군,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16명을 투입해 군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핵심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를 체납한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대형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 재무과 징수팀(자동차세 940-2623) 또는 민원봉사실 민원팀(갑사지연 과태료 940-2143),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940-2424)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체납액을 완납(가상계좌납부 등)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 미 부착 후 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세액을 줄이고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아산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행기관 모집



아산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및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일반행정자리 42명(전일제 33명, 시간제 9명)과 복지일자리사업

을 수행할 수행기관 6개소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반행정자리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인 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아산시

아산=리량주기자

## 철도공단 방글라데시 고속철도사업에 첫발을 내딛다

다카~치타공 고속철도 사업타당성조사·상세설계 용역 사전자격심사 통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27일 방글라데시 다카~치타공 간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상세설계 용역 사업에서 사전자격심사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정부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철도 신설(856km), 복선화(111km), 보수·개량(725km) 등 300억 달러(약 34조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서 제1의 항구 도시인 치타공까지를 연결하는 약 232km 구간에서 최초로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아심차에 추진하는 사

업이다.

철도공단은 국내 철도전문 엔지니어링사와 더불어 스페인 및 현지사가 함께 참여한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난 8월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독일, 스페인, 중국, 일본 등 고속철도의 강국들이 대거 참여한 21개 컨소시엄들 중에서 6개사를 선정한 사전자격심사에서 당당히 1위로 통과한 쾌거이다.

이는 철도건설의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정에 대한 조정자로서 공단의 전문역량을 물론, 국내 고속철도 건설 및 해외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품질제고·사업비 절감·공기준수 등 뛰어난 사업관

리능력을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 국내 중소 엔지니어링사와 동반 진출해 신호현대화 사업과 복선화 개량사업에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철도 고위급 관계자들의 초청 및 방한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온 결과이다.

지난달 28일에도 방글라데시 철도부 차관 등 철도 관계자 6명이 방한해 공단의 부이사장과 면담했으며, KTX와 SRT,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시승하고 고속철도 차량기지 및 철도레일 제작공장 등 한국의 앞선 철도기술 현장을 차례로 견학한 바 있다.

송병배기자

## 한서대, CJ 이채욱 부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한서대는 지난1일 이채욱 CJ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한서대 연암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함기선총장과 교직원,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946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한 이채

욱 부회장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물산 해외사업본부장, 삼성-GE 코리아 사장 및 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한 후 2013년부터 지금까지 C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제공항공회(ACI)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위에 오르게 하는 등의 뛰어난 업적을 남겨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전로경영인으로 손꼽힌다.

그는 인재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인천 하늬고등학교를 설립해 명문 반열에 오르게 하고 자신의 경험을 젊은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많은 저술활동도 펼치고 있다.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부회장은 답사를 통해 "한서대 명예박사로서 한서대의 건학이념인 창의, 신념, 공헌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인도·ASEAN 바이어 대전·세종 수출문 두드려

해외바이어 9개국 31명 초청, 수출상담 200건 3천만달러 수출계약 320만달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1일 대전 ICC호텔에서 개최된 2017 대전·세종합동 수출상담회에서 총 3천만달러(한화 약330억원) 상당의 수출 상담실적과 320만 달러(한화 약35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우리지역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인도·아세안지역 국가 등 총 9개국 26사, 30명의 해외바이어와 지역수출기업은 75개사가 참가해 많은 성원과 관심속에 치러졌다.

협회는 사전에 우리지역 주요수출품목을 파악해 관련 바이어 초청을 위해 해외지부, 쿠알라룸푸르 상공회의소 한국사무소 등 다양한 통상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유망바이어를 선별, 초청했다.

이번 행사 참가를 위해 중국상위 500대 제조 기업 중 하나인 Wanna Group, 일본의 중견 뷰티 전문기업 AIA Corporation, 인도의 가장 오래된(1890년 설립) 장난감 유통기업 RCS Toys, 인도네시아의 유명 한국식품유통 체인 Grand Lucky 등이 대전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화장품 및 미용용품, 전기전자, IT제품, 기계부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우리지역 주요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우수기업 75개사가 참가해 약 200건 이상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열띤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참가 바이어중 스킨케어, 건강식품 및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의 A2Y Global사는 에코바이오(23만1천불), 유메인(주)(10만불), ㈜동진컴퍼니(6만불), 등 우리지역 유망 중소기업 3개사와 총 39만1천불에 달하는 MOU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러시아의 Teminal사는 진공포장 후 뚜껑 안쪽이 뜨거워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유한 BL.T(주)의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

며 샘플을 구매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바이어 초청행사를 계기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의 수출계약체결이 예상된다.

무렵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수출기업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상승되고 우수 바이어 고객 창출 및 수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과 전략적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도모에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다.

무렵 대전세종충남본부 김경용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로부터 유망바이어를 초청했다"며 "이번 상담회가 권역 내 초보 수출기업에게 수출 기회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기회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무역 협회는 참가한 기업을 비롯해 관련 수출향대기업에게 1:1 방문 컨설팅, 유망 시장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기업지원과 김기환 과장은 "2015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수출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우리지역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바이어에게 우리 지역의 수준 높은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제품의 시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시 투자유치과 안유성 과장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수출기업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해외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원 사업 전개를 통해 세종지역 기업들의 수출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042)538-3030



# 산림청, 제40회 산사태방지 연찬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산사태·사방사업 담당자 참석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30일부터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산사태·사방사업 담당자 3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메종급레드호텔에서 '제40회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내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30일 기관별 산사태 예방·대

응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최우수 기관을 선발·시상했다.

또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산사태방지 정책과 유역단위 산림관리로의 정책 전환 등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1일에는 산림유역관리 사업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박봉관기자

# 당진시, AI 감염 차단 총력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가동... 즉각 대응태세 갖춰



지난달 23일 당진시 석면면 장고항리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발견된 AI 항원이 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다량히 음성으로 지난 30일 밝혀졌지만 당진시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3일에 앞서 지난달 5일 삼교호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은 아니지만 H5 항원이 발견된 전례가 있는 만큼 대호호와 석문호, 삼교호 등 당진 관내 대형 담수호는 언제든지 AI 바이러스에 감염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는 관내 양계 농장 등으로의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시는 23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1차 검사 결과가 나왔던 25일부로 즉시 항원 검출지역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 예방 지역

으로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완료하는 등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진 관내 533곳의 가금류 농가에 긴급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125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토록 조치했다.

또한 석면방조제와 주변 10km 구역 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단을 투입해 집중 소독에도 나섰으며, 시에서 자체 중점 관리하고 있는 종계농가 29곳과 산란계 농가 6곳에 대한 관리와 소독도 강화했다.

특히 철새 도래지역 내 AI 항원 발견과 관계없이 시는 이미 지난 8월 11일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겨울철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당진=최근수기자

가양1동새마을금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맞이

# “2017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가양1동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가양1동통장단, 가양1동부녀회, 가양1동새마을협의회 등 50여명은 지난 1일 오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맞이 2017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매년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배추 700포기(총 200박스)를 관내 경로당, 애육원, 다문화가정, 무료급식소, 각 동별 불우이웃에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새마을금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양1동새마을금고 서영길 이사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다양한 환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웃사랑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중국발 미세먼지, 안정동위원소로 첫 추적 확인

## 고농도일 때 72%까지 높다 모델링... 성분 분석 결과 토대로 중국 영향 처음 확인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정상 시에 47%, 고농도일 때 72%까지 높다는 모델링 결과는 나왔지만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 영향이 처음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최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에 함유되어 우리나라로 이동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3년부터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해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추적 분석해 온 결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에 들어있는 황산염의 안정동위원소가 중국의 베이징, 백령도와 서울에서의 분포값이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황산염의 안정동위원소의 비율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된 비율과 유사하다면 이는 중국의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안

정동위원소는 석탄발전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 배출원 별로 동일한 비율을 갖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장거리 이동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등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을 추정할 때 기상조건과 배출량을 기초로 모델링을 돌려 추정해 왔으나, 이번처럼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자연상태에서 동일한 원소의 존재비율로 추적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환기자

송옥주 의원은 "중국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막을 내린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단(LTP) 회의에서 국가 간 대기오염 영향결과를 한중일 장관회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기자

**충남대,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교육생 모집**

충남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선도인력 교육생을 모집한다.

충남대 인재개발원은 12월 6일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핀테크 서비스와 디지털 금융보안', '융합형 생명과학 실무과정'로 각각 20명을 선발한다.

참여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자,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다. 교육은 12월 1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훈련비도 지급된다.

이정복기자

# 호서대 '숲'을 테마로 호서문콘 포토페스티벌 개최

호서대학교 문화콘텐츠전공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전시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 아산캠퍼스 중앙도서관 갤러리에서 오는 5일~15일까지 '숲을 테마로 한 호서문콘 포토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포토페스티벌은 호서대학교 문화콘텐츠전공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전시로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열린다.

첫 번째 섹션(12월 5일~11일)은 김종태 교수의 야쿠시마 흑백사진

전 <천년의 숲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섹션(12월 12일~15일)은 재학생들의 단체사진전 <청춘의 숲으로 가는 길>이 전시된다.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태 교수와 김 교수로부터 DSLR 사진촬영을 배운 재학생들이 함께하여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는 이번 사진전은 일본 야쿠시마의 원시림을 촬영한 흑

백사진 16점과 한국의 다채로운 숲을 촬영한 컬러사진 24점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종태 교수의 사진전 <천년의 숲으로 가는 길>은 빛과 어둠의미를 강조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야쿠시마 숲의 여백 속에 스며든 은은한 빛의 파장을 통해서 원시적 세계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형성하고 있다.

재학생 단체전 <청춘의 숲으로 가는 길>은 숲, 꽃, 풀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주로 형형색색 단풍 등 우리나라 가을의 아름다운 풍광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포토페스티벌을 기획한 김종태 교수는 "재학생들의 열렬한 예술정신과 부단한 노력의 결실인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

# 2017년 청소년위원회 수료식 가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일 2017년 청소년위원회 활동 평가회 및 수료식을 진행하고 활동에 참여한 1기 청소년위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송촌고, 호수문고 학생들은 청소년위원회' 이력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동권리옹호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실시했다.

청소년위원회 활동은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교구제작 및 진행, 유엔아동권리 달력 제작, 아동청소년권리일기 블로그 활동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지난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수료증을 전달했고 청소년위원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담긴 달력 수여, 활동 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 발표로 진행됐다.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유미관장은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리교육 프로그램 교구제작 및 진행, 유엔아동권리 달력 제작, 아동청소년권리일기 블로그 활동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지난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수료증을 전달했고 청소년위원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담긴 달력 수여, 활동 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 발표로 진행됐다.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유미관장은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K-water '2017 K-water 창의혁신 콘서트' 개최

2017년 한해의 우수한 창의혁신 활동사례 공유



K-water(사장 이학수)는 지난 11월 30일 15시, 본사대전지대덕구에서 2017년 한해의 우수한 창의혁신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2017 K-water 창의혁신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이했으며 '혁신,

답은 디테일에 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콘서트'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임직원들이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발표자의 자유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일상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한 7건의 창의혁신 사례가 소개됐다.

박봉관기자

# 대덕한우리 & 버킷리스트야구단,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대덕한우리회장 이현정과 버킷리스트 야구단의 이웃사랑 실천이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주변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연탄'을 직접 구입해 전달하고 위로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 신탄진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등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현정 회장과 임원진을 중심으로 한 40여명의 회원들은 지난 2일 신탄진 지역 기초수급자 가정 5세대에 총 2100여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연탄은 회원들이 모은 기부금으로 후원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기 온풍기, 식품과 같은 후원물품의 손길까지

전해준 것으로 알려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현정 회장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나눔의 행사에 동참한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을 연탄에 의지해 보내야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아주시는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나눔 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의 후원기관으로는 헬기 둔산점 피부과, 계동회, 변호사전문대법률사무소, 탑플러스 마트정육, 노경표 의 스포츠, (주)리본이팅, 내준 마블링 커피숍, 티파니골드, SE eng 서천대방수산업이 있다.

김태성기자

아산시 신창면 새마을 남·여지도자협의회

#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 전개



아산시 신창면 새마을 남·여지도자협의회(회장 박희성, 부회장 박연옥)가 지난 27일 5박 6일간 일정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났다.

신창면 새마을 회원 30명은 캄보디아의 씨엠티 주를 방문해 그곳의 공동우물 관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미용 봉사, 의류 기부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박희성·박연옥 회장은 "지난 해에 신창면 새마을에서 만들어 준 공동우물이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도 연례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신창면 새마을협의회만의 고유 활동으로 삼아 지속,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식 명장은 "관내 지역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봉사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신창면 새마을 남·여지도자협의회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캄보디아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신창면 새마을이 널리 뻗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부여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기동검사 실시**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29일 위험물 차량 이동이 많은 로터리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실시 기동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양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지난달 29일 송의청소년수련원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촌장로교회, 대전공동모금회에 1천 5백여만원 기탁** 송촌장로교회(목사 박경배)는 지난 1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1천 5백여만원을 기탁했다.



**당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캠페인**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지난 11월 30일 의용소방대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 전통시장 일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2018 제대군인 위탁교육 설명회**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1일 대전보훈청 대강당에서 '2018년도 제대군인 전문위탁교육' 공모에 참여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가졌다.

### 아산소방서, 겨울철 산행 주의 당부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근)는 겨울철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조난 및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겨울철 무리한 산행 자제와 산악 안전수칙 준수 등 겨울철 산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산행은 낙상이나 골절 등 각종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 없이 나섰다간 자칫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예방수칙으로는 ▲ 급격한 기온저하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초보자의 경우 지리에 능통한 전문가와 동행 ▲ 비상상황을 대비해 휴대용 예비배터리, 휴대용 텐트, 비상식량 등을 철저히 준비 ▲ 갑작스런 기상변화에 대비해 수시로 일기예보 확인 등이다. 김득근 아산소방서장은 "겨울 산행 시에는 반드시 겨울 산행에 맞는 등산장비를 착용하고, 등산 중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설치된 '산악안내표지판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가을철 건조기후로 '전국 산불발생 급증'

## 산림청, 30일 산불 8건 발생... 가을철 최다 "각별한 주의 필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 가을 건조주의보 발령이 지속되면서 지난 30일에는 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11월에만 총 23건의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11.30일 기준) 산불이 642건 발생해 1,415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최근 가장 많은 산불이 난 2015년도 623건을 넘어섰으며, 피해면적도 최근 10년 평균(468ha) 대비 3배나 증가했다. 특히, 11월에는 산불이 총 50건 발생해 지난해(9건)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이 13건, 경남이 9건으로 44%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저녁이나 이른 새벽 등 야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해 산림당

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간에는 헬기투입이 제한돼 산불 특수진화대 등 인력에 의한 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험준한 지형과 추운 날씨로 진화호수가 얼어붙어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 등 감시 인력을 집중 투입해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와 입산자에 의한 실화 등 산불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가을철 산불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건조한 기후로 작은 불씨에도 쉽게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산림주변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말고 산불안전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서천소방서, 화목보일러

### 사용 각별한 주의 당부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해)가 최근 쌀쌀한 날씨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 농촌지역 주택의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화목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기름 보일러와 달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어 농촌지역 주택에서 설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어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화목보일러 사용 및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화재예방 안전수칙에는 ▲ 나무뭇가지 등 가연물 적치 금지 및 주변정리 ▲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건축물의 벽과 1m 이상 이격 ▲ 건초를 관통하는 연통부분 불연재로 사용 ▲ 연통 수시 점검 및 부식된 연통 즉시 교체 ▲ 연소 시 투입구 문 개방 금지 및 보일러 주변 소화기구 비치 등이 있다.

## 3일부터 응급실 보호자 출입, 환자당 1명만 가능

감염 예방·신속 진료·출입증의무화, 발열·기침 증상자제한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환자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의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토록 한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후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보호자 중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은 응급실 출입이 불가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에 대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

## 홍성경찰서, 전년 비해... 5대 강력범죄 대폭 감소

지난 해 747건 비해 82건(12.3%) 줄어

2017년 11월말 현재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경찰서는 1월, 11월말까지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홍성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는 총 665건으로 지난 해 747건에 비해 82건(12.3%)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지난 해 5

건에서 올 해는 1건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외에도 성범죄는 30건(-13.3%), 절도 251건(-25.5%), 폭력 383건(-2.3%)으로 전체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사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5대 범죄의 검거율은 살인 100%, 성범죄 106.7%, 절도 62.5%, 폭력 91.1%로 나타났고, 특

히 성범죄의 경우 금년에 발생한 범죄를 100% 검거한 것은 물론 미제사건까지 해결해서 검거율을 지난해보다 40%p 가까이 끌어 올렸다. 이복한 수사과장은 "강력범죄가 대폭 줄어 들어 다행"이라면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형사들도 더 긴장하고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정환기자

## 사총협 재정지원특례·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적극 추진

서울 더케이호텔서 사총협 정기총회, 4차산업혁명 시대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노력하기로



교육부와 한국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이승훈, 이하 사총협은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 위)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승훈 사총협 회장(세한대 총장) 등 전국 사립대 총장 8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기총회에서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립대의 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데에 있어 사총협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총협은 고등교육 당국과 당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교협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와 사총협은 정기총회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선언에 따라 사립대학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누리며, 교육·연구·산학협

력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사립대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은 국가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학생·학부모 학부 부담 경감에 힘쓰며, 대학은 공정한 학생 선발, 엄정한 학사 운영,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부와 사총협 공동주관의 '대학·교육부 간 사학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의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어 김준원 사총협 정책개발위원장(세한대 교수)의 사회로 '고등학교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편, 사총협은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추진하는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사립대 주요 협의체(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도서관, 산학협력, 평가, 홍보 등)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주택용소방시설 이색홍보 '눈길'

예산소방서,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용우표 제작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해 우편물 발송 시 부착할 수 있는 홍보용 우표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이다. 예산=양성업기자

그러나, 주택용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시민들의 낮은 관심도로 설치율이 저조하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편물 수령인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를 시작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홍보 우표"를 제작했다. 예산소방서는 이전에도 이색적인 캠페인 부동산염탐시스템을 이용한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임재정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홍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구매와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여자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청양경찰서, 여성군민의 성범죄 위협으로 보호 위해 운영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청양군과 함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군민의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성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 지난 7월 청양시장 등 공공화장실 4개소 설치에 이어 추가적으로 청양시장 2개소, 천장호 2개소, 칠갑광장 2개소, 까치내 캠핑장 2개소 등 총 8개소에 '여성안심비상벨' 42대를 추가 설치했다. 요즘 여성범죄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심야시간에도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성안심비상벨'은 화장실 내부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 때 칸막이 안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 작동과 함께 벨이 울리고 동시에 청양경찰서 112 종합상황실로 위치정보가 자동신고 접수 되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청양경찰서장은 "여성안심비상벨"은 야간에 안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로 여성이 안전하게 배거리를 산책 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 직장인 70% '경제적 가장' ...가족 위해 일한다

## <커리어>조사결과...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으로는 '배우자' 1위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경제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67%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1일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574명을 대상으로 '이 시대 직장인 가장으로 살아가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7%가 '경제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이라는 역할이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가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편이다'라는 의견이 46.6%로 가장 많았다.

'가족도 생각은 하지만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 32%,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 20.7%, '가족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0.7%였다.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으로는 '배우자(52.7%)'라는 답변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자녀(16.5%)', '부모님(14.8%)', '이외 가족 구성원(8.6%)', '애완동물(4.7%)', '형제자매(2.7%)' 순이었다.

가장으로서 가장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를 묻자 응답자의 49.3%가 '나의 소득으로 인해 가족들이 행복과 편의를 느낄 때'라고 답했다. '가족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30.8%)', '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따라와줄 때(13.1%)', '가족들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6.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으로서 가장 힘들 때는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30.3%)'였다. 다음으로 '같은 일상의 반복이 무료해질 때(24.1%)', '나이가 들며 따라 체력적인 한계로 인해 가장의 역할에 어려

움을 느낄 때(16%)', '가족들이 내게만 너무 의지할 때(12.6%)'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한 달간 가족과 떨어져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물었다.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의견이 63.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다(20.7%)', '친구들과 보내고 싶다(9.1%)',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다(6.7%)' 순이었다.

이정복기자

# 대전시교육청, 수학교육상 4년 연속 수상

봉우중 송리영 교사, 수학 수업 헌신성 인정받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봉호)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동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에 대전 봉우중학교 송리영 교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수학 수업과 교육에 대한 헌신성 등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수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평가하여 수학교사에게 전국·중·고 포함에서 매년 10명씩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이다.

입장자인 송리영 교사는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실 수업 방법 개선, 과정중심 평가방법 개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제작 등으로 수학교육발전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었다.

한편, 재직중인 대전봉우중학교는 지난 2년간 수학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했으며, 2017 대전수학교육추진위원회(대전수학사랑 교사연구회 회장) 등 다양한 수학 활동을 통해 대전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평가받았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부상이 수여되고, 정책 추진시 수학교육 우수교사로서 지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수상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 충남교육청 "에너지전환교육 선도하겠다"

에너지 전환과 미래교육혁신 국회포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이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교에너지 전환교육의 모델을 설계하고 미래교육의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에너지전환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미래교육혁신 국회포럼'에서 김 교육감은 에너지전환교육 선도 교육청 위상정립을 위해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및 생태 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에너지 전환교육 기반 마련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중심의 에너지 생태환경교육 ▲환경 친화적 위한 '충남형 초록 에너지학교'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에너지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포

# 2015 개정교육과정 안착 위한 교원 연수

부여교육지원청, 관내 초등 교원 66명 대상 실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은 11월 30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2일간 부여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 교원 66명을 대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4학년 교과별 현장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올해부터 1~2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8년도에는 3~4학년, 2019년에는 5~6학년까지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10명의 강사들이 참여하

여 하루 5개의 교과목에 대한 연수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은 물론 3~4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도덕 등 9개 교과목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이해 및 사례 안내 및 분석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교사들은 분임별 토의를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적용을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임했다.



아산교육지원청, 2018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 가져

# 의당초, 진로캠프 공모전 '최우수상'

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성과 보고회



의당초등학교(교장 오병익)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최한 '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성과 보고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당초 4학년 학생들은 지난 10월 서천청소년수련원으로 다녀온 진로캠프를 주제로 '흥미진진 진로캠프, 우리 꿈이 커가요 UCC'를 제작하여 공모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꽃보다 친구'라는 팀명으로 공모한 이 작품은 진로캠프에서 경험한 내용과

배우고 익힌 내용을 서로 느낀 점들을 표현해 보고 함께 모여 활동한 여러 자료를 모아 영상을 찍어 UCC로 제작한 것이다.

'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성과 보고회'는 11월 30일(목) 10:00 ~ 오후 4:30분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있었고 제1부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제2부 Career 樂 대상 수상자 강연 발표회가 있었다.

공주=정성범기자

# 세한대 '충청권 학생 창업스케치 경진대회' 수상

예비창업자 '한잔더 BEER' 팀, 창업 성공에 한발 더 다가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는 지난 11월 29일 '2017 충청권 학생 창업 스케치 경진대회'에서 한잔더 BEER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대전·충청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12개 팀이 참가했다.

세한대 '한잔더 BEER'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나만의 맥주 ▲특별한 이를 위한 맥주 ▲특별한 날을 위한 맥주라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특히 훌륭한 풍미의 지역 맥주라는 아이디어로 지역과 협업하는 특목 튀는 아이디어가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동아리 대표 김병기 학생(실용음악학과 3학년)은 "창업 준비를 시작할 때 막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취업·창업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한발 짝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송영학 세한대 취업·창업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Wee프로젝트 상담역량 강화 연수 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38명 대상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Wee센터는 11월 30일(목)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16시에 Wee프로젝트 전문상담(교)사 38명을 대상으로 상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김혜영(공감에속심리상담센터, 건양대학교 예술치료대학원 외래교수)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상담에서의 놀이(게임) 및 미술기반 접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문일규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보다 쉽게 형성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상담(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논산=김태선기자

# 세종시교육청, 학교문화지표 개발

학교민주주의와 전문성 지원하는 학교문화지표 개발 정책연구 최종발표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교육청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민주주의와 전문성 지원하는 학교문화지표 개발 정책연구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학교문화지표는 교육 주체의 참여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민주적 학교문화를 진단하고 성찰하는 도구이다.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오유석 교수 연구팀이 연구원으로 하여 6명의 교수와 교육전문직, 교사가 약 6개월에 걸쳐 개발한 이번 학교문화지표는, 세종시교육청 4대 혁신 과제(민주적 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율과 협력의 생

활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를 중심으로 15개 지표와 90개 지수로 개발됐다.

15개 지표는 민주적 학교운영 영역의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결함 위임 및 분산 리더십 ▲혁신 비전 수립과 공유, 전문적 학습공동체 영역의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운영 ▲개방·공유·협력의 교사문화 ▲수업과 교육과정의 공동연구,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 영역의 ▲학생자치 활성화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 ▲상호존중과 돌봄의 학교, 창의적교육과정 영역의 ▲창의적 수업진행 ▲학생 배움 중심 수업 ▲창의적 평가제, 학교민주주의 영역의 ▲자유의 보장 ▲평등의 보장 ▲권리보호와 수직적 책임성으로 구성됐다. 세종=이정복기자

# 201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성 검사

2018학년도 우수 영재 선발 시동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정근)은 지난 2일(토) 금오초등학교 지정교실에서 초·중학교 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예산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영재성 검사를 실시했다.

영재교육의 목적에 맞고 미래 발전이 가능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이번 검사는 GED(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학생 지원, 교사 추천, 학교 추천을 거쳐 지원서를 제출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영재성 검사지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검사로 예산교육지

원영재교육원은 초등5~6학년 인문사회, 초등5학년 수학과과학, 초등6학년 수학과과학, 중등1~2학년 수학과과학 4개 학급으로 운영되며 각 학급별 20명씩 총 80명의 학생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2018년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출석수업, 신설된 교양수업(드론교육, 토의·토론 학습, 독서인문학 등), 영재교육 혁신 캠프, 다문화 학생 지원 봉사활동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을 개발하여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산=양영범기자

# 대한적십자사 서산지구 '어머이 생신상' 차려

개회식, 중식, 위문공연 순으로 진행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서산지구협의회(회장 송희자)가 지난 1일 트레웨딩 컨벤션에서 저소득층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어머이 생신상 차려 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원석 서산시장,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정기 회장, 서산시 각 당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개회식, 중식, 위문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적십자사 서산지구협의회 봉사원들은 미역국, 생일케이크, 떡, 과일 등으로 정성껏 차려 생신상과 위문공연을 준비해 어르신들 흥을 돋웠다. 서산=김정환기자

# 아산시, 웹툰 공모전 최종수상작 발표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가 건강생활 실천 향상 도모 및 건강도시 아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건강도시 아산 웹툰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수상작은 총 4작품으로 이번 웹툰 공모전에 대상은 '산이이의 건강일기'를 주제로 산이이라는 캐릭터가 자신의 경

험을 통해 직접 얻은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웹툰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여의 공모연장 기간을 거쳐 진행해 총 514작품이 응모했고 웹툰에 관심 있는 젊은 층의 지원이 주를 이뤘다. 아산=리량주기자



● 동 정 ●●●

수업담당교사워크숍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4일 오후 3시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평화통일 교육 담당자 및 수업담당교사워크숍」에 참석.

간부회의



김석환 홍성군수= 4일 오전 8시 40분 군청회의실에서 실시되는 간부회의에 참석.

성금 모금 일일차집행사



윤석우 충남도의회의원장= 4일 오후 1시 30분 충남도청 로비에서 (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 일일차집행사에 참석.

충남도 가스안전결의대회 개최

충남도는 1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가스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가스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가스안전 포스터 전시, 동영상 홍보물 상영 등이 열렸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현대제철 김성용(49씨) 등 5명이 도시사상을, 아라리오 박창해(50씨) 등 10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장 표창을 받았다.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실시공 추방 및 가스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스 사고 방지 △가스시설 관리·점검 철저 △가스사용자 제도 및 홍보 △가스의 안정적 공급 등을 다짐했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가스 관련 기관 및 가스업계 관계자, 소비자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와 자율점검 생활화를 통해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도내 가스업소는 1607개이며 올 한 해 도내 가스사고는 총 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환 기자

천안 외투지역 '사람+문화의 옷' 갈아입다

청년층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

「회색빛 도시」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이 사람과 기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단, 찾고 싶은 산단으로 거듭난다.

도는 1일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에 올 한 해 1억 6600만 원을 투입, 아름다운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삭막하고 특색 없는 산업단지에 사람과 기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환경을 입히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다.

천안 외투지역에는 국내 최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라는 상

징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디자인을 개발·적용하고, 투자국가별·기업별 테마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픽 단장을 조성했다.

또 산업단지 내 휴게공간으로 근로자 복지 센터를 조성하고 천안외투지역에 투자한 국가의 국화(國花)를 심어 쾌적하면서도 상징

성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

여기에 사고우려가 높은 교차지점에는 횡단보도 정비와 서행유도 사인을 적용해 근로자 이용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아름다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회색빛 이미지의 산업단지를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 청년층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30일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과 이동찬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장, 류종운 충남 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 회장 및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기업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산업단지 조성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김정환 기자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개최

예산군 여성폭력 예방 홍보 추진

예산군은 가정폭력·성폭력 추방기간(11.25~12.1)을 맞아 지난 달 30일 예산시네마 광장에서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 성범죄 OUT이라는 주제로 폭력추방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예산군, 예산

경찰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성폭력상담소), 가정상담소 등 폭력관련 유관단체 40여명이 참석해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몰

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피켓과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한편, 폭력예방을 위한 인형극을 준비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폭력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2017 저출산극복을 위한 지자체 우수시책 경진대회

세종시 우수상 수상 영예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1월 3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8000

만원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집근처 근거리임신, 출산, 돌봄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출산환경 조성'과 '가정산후조리 지원 및 주민참

여 활동' 등의 추진 사례가 높이 평가됐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 대상을 받은 바 있어 원스톱 출산환경 서비스가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젊은 세대가 많은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신, 출산, 돌봄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출산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저출산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전 지자체로 확산 사회 전반에 걸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김정환기자

홍성군 건강도시추진위원회단 발족

홍성군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와 대한민국 건강도시추진협약(KHCP)에 건강도시가입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강도시추진위원회(사진)를 발족하고 홍성군보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홍성군부군수(하광학)가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였고 부위원장은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진영란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주민대표, 전문가, 단체장 등을 포함한 19명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지난 1년간 홍성군이 추진해온 건강도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홍성군이 건강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몸,

마음, 사회, 환경이 더욱 건강해지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홍성군 주민들은 축산폐기물로 인한 악취, 미세먼지, 불충분한 물 공급을 현재 홍성군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다.

향후 홍성군이 건강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환경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하광학 부군수는 "홍성군은 전국 256개 시군구에서 89번째로 건강도시에 가입,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민·관·학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가장 앞서서 지자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성=김정환기자

광역시·도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

감사업무 협의체 구성 공동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공동으로 2017년 11월 30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광역시·도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최정운)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오창수) 등 3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과 공무원 등 30명(세종특별자치시 11, 서울특별시 8, 제주특별자치도 11)이 참여하였는데,

전국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는 감

사기구 간 감사활동 상호 협력과 감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광역시·도 감사협의체를 구성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차후 실무진에서 상호 협의하여 공동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감사업무 협의체 구성 준비를 위한 의견 교환 ▲향후 MOU 체결 ▲감사공무원의 연수, 파견 등 인적 교류방안 ▲감사기법과 경험 공유 협력 등에 대해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종=김정환기자

2017 자원봉사센터 우수사례 공유회

도민 모두 행복한 지역공동체 영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2017 자원봉사센터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의 따뜻한 공부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리더봉사자, 거점담당가 80여명이 참여했다.

시군센터별로 특성화된 자원봉사 대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석자 전원이 현장 투표를 통해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아차상 순으로 프로그램을 선

정했다. 이날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논산시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자원봉사 홍보 1365! 우리 모두 GO-GO'는 참석자와 봉사자에 대한 열정이 돋보임으로써 참석자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공유회를 개최한 도자원봉사센터 황장순 이사장은 "오늘 소개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송병배 기자

Advertisement for Enfren tires featuring a woman running and a tire image. Text includes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and '엔프렌 효과란?'. Logos for Enfren and Hankook are visible.



#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 개관

## 당진시, 왜목 국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기대



김승진 선장의 희망 항해 성공을 기념하고 국가 거점 마리나 항만으로의 도약을 염원하는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이 지난 1일 당진 왜목마을에 문을 열었다.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이 조성된 당진 왜목마을은 지난 2014년 10월 19일 김승진 선장이 아라파로의 도약을 기념하는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이 지난 1일 당진 왜목마을에 문을 열었다. 210일 만에 성공적으로 귀항했던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이 이곳 왜목마을 공유수면 부지에 지상 2층, 165.72㎡ 규모로 조성된 기념관은 전시실과 교육장,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1층에 마련된 전시관에서는 김승진 선장의 무동력 요트 세계일주 일련의 여정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2층에 위치한 교육장에서는 왜목마을 앞바다와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요트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왜목 거점형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왜목 마리나 항만의 개발면적은 19만 4,047㎡이며, 300억 규모의 계류시설과 방파제, 호안, 클럽하우스, 보관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1월 협상대상자로 중국 국영기업이 설립한 ㈜CLGG코리아가 선정됐으며 7월에는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을 맺으며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안을 확정된 뒤 실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진=최근수 기자

우리/동/네

# 여가부장관상 2회 연속 수상

## 태안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성과



태안지역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는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순준)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2017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여성가족부 주관 '2017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평가'는 전국 7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21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했다. 센터 운영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평가가 이뤄졌으며 이번 시상에서는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한 총 9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태안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사업운영의 효과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회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학교박·인터넷 중독 청소년 등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 변화에 앞장서며 큰 효용을 얻고 있다.

태안군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선정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행복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안=김정환기자

#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금지

## 청양군, 하수관 막힘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하수관 막힘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근 번지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율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고품질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또는 불법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됐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를 유발하며, 오수 파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군은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하수도법 제76조, 제80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 공직자 대상 자치분권 특강 실시

## 당진시, 자치분권 실현 위해 공직자역할 중요

당진시가 지난 1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700여 명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안성호 정부 자치분권 전략회의 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지방자치체도의 정상화와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공무원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호 위원장은 특강에서 현재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분권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 보고 선진국의 사례와 현 정부의 분권개원 과제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자치분권의 추진방향과 역할을 설명했다. 당진시는 현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와 더불어 내년 6월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 시 지방분권 개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향후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권 교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분권과 관련해 현 정부는 지난 10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 간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공개했으며, 지방분권형 개원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핵심전략과 3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당진시는 자치분권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7강에 걸쳐 자치분권 대학을 총민도내 최초로 운영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동정

#### 총회협의회



김홍장 당진시장 = 4일 오후 5시 가인예식장 백조홀에서 열리는 12월 중 지역 총회협의회에 참석.

#### 정례회 개최식



한상구 태안군수 = 4일 오전 10시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식에 참석.

#### 위·수탁 협약



이석화 청양군수 = 4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4분기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한 후, 오후 4시 군수실에서 청양군노인요양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

#### 예산안 심사



윤주억 청양교육장 = 4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2018년 교육회계 예산안 심사에 참석.



### 시민정보화교육 연간 74회 운영

#### 아산시, 11개 과정 개설

아산시는 시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 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2018년 아산시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한다. 2018년도 시민정보화교육은 1월 2일부터 시청 지하 전산교육장에서 실시되며 11개 과정이 개설되어 연간 74회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컴퓨터첫걸음, 인터넷활용, 한글2010의 기초과정과 스마트폰활용, 블로그, 엑셀2013, 파워포인트 2013, 지적증 취득의 실용과정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가정(기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어르신, 주부, 농어민, 다문화가정 등 아산시민으로 매 과정별 55명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과정 시작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아산시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http://www.asan.go.kr/edu>)나 전화아산시 콜센터 1577-6611 또는 540-2114로 하면 된다. 아산시는 매년 정보화 관련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2017년도에도 국민행복IT경진대회 본선 진출 및 제12회 도민IT경진대회 기관 최우수와 5개 부문에서 개인 및 팀이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김경덕 정보통신과장은 "2018년도에도 정보화 시대에 누구나 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아산시 주민이 만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아산시가 마을에 디자인을 입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 아산시는 신창면 읍내 1, 2리 일원에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학가 안심읍내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이란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4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2017년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에 선정되어 도비 178백만원, 시비 122백만원 등 총 300여 만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주변으로 대학생 등 1인 가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노후된 원룸 등이 많이 분포된 지역이다. 또한,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해 내·외국인 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장조사 및 주민상담을 통해 현장분석을 완료했으며, 지난 11월 30일 읍내 1, 2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설명회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했다. 마을 안전지도란 주민들이 범죄 발생 공간 및 범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 환경 정비 등이 필요한 공간 등을 지도에 직접 표시

#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제3대 장문준 위원장 취임

지난 2014년 출범한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제3대 위원장으로 장문준 위원장이 선출됐다. 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1월 30일 군청 대강당에서 제3대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선출 건으로 총회를 열고 장문준 위원장 후보와 엄기숙 수석부위원장 후보, 김재홍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에 돌입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득표수 262표(97.8%)를 기록해 태안군노조의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노조 조합원 420명 중 268명이 참여하며 임원 선출에 대한 공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4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장문준 위원장은 앞으로 신임 임원들 및 600여 공직자들의 힘을 모아 열정과 패기로 땀땀 뚫어 군민에게 사랑받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문준 위원장은 "2대 노조의 역할 사업은 이어가고 신규 사업은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강인한 의

태안=김정환기자

# 청양사회경제네트워크 선진지 견학·연찬회 실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청양사회경제네트워크(대표 박영숙)의 주관으로 미래 지향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3일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청양 사회경제 관련 회원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지향적인 경제활동으로 정착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서천군 마을

기업을 탐방했다. 참여자들은 서천의 동자북 마을을 찾아 경영노하우를 배우고 탐구했으며, 특히 임동한 천군만 대표로부터 서천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숙 대표는 "회원들 간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의견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며, 청양군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호응

계룡시, 영유아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 도모



내실화와 지역 쌀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집 45개소에 관내 농가에서 재배한 딸기, 사과, 배 등의 영양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수시로 제공...

시는 안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홍욱 시장은 "계룡시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친환경 쌀과 채소 과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계룡시를 위해 영유아를 위한 보육관련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사랑의 손수레 전달

천안시, 바자회 수익금 손수레 구입 지역 어르신께 전달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주석은 1일 시청에서 폐지를 모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지역 어르신 2분에게 사랑의 손수레 2대를 전달했다.

노동조합은 1년간 자체활동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품(가정용 소화기, 화장지, 세제 등)을 시청직원들에게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사랑의 손수레 2대(1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전달되는 손수레는 편의성이 좋은 접이식으로,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춰 경량화하고 안전을 위해 형광페인트칠과 보조바퀴, 반사등을 설치한 것으로 주문 제작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공무원 노사가 함께 시민행복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공무원노조는 매년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으며, 올해는 만우절 뽕과자 판매로 환아들 기, 연탄 2천장 구입 및 배달봉사 등 사회와 동거동락하는 나눔을 3년째 실천해 오고 있다.

천안=채기명기자

### 서천군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총력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333개소, 복지시설 76개소 등 총 40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폭설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상태 ▲난로 및 각종 화기 사용의 안전상태 ▲소방설비 및 경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화재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화재 등 비상재해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점검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해 조기에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전국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역할 수행·맞춤형 건강증진 도모

논산시시장 황명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1월 30일 대구인터블로그 호텔에서 열린 2017년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인센티브 1천5백만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사업 운영성과 확산 및 역량강화 동기 부여를 위해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32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5개 영역, 9개 세부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논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건강지킴이 협의체 운영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인 점이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개소 후 인근 13개동원도심 지역주민 800명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을 1:1 조사를 통해 D/B기 초지료를 구축하는 등 개인별 건강

문제를 찾아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에 맞는 보건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특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기반구축, 특화사업, 기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운영하는 등 지역수준에 맞는 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항순 보건소장은 "주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지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6년 5월 개소, 주민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실천의지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건강 측정과 운동, 영양분야 등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지표를 맞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천안시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에 탄력

천안시는 30일 열린 천안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삼거리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돼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변경)은 기존 공원의 철저한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선진공원 벤치마킹 등을 기반으로 천안 삼거리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 입지적 의미를 찾고, 숲이 우거진 현대적 공원의 기능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변경)에 따르면 삼거리공원에 한양길·호남길·영남길 등 삼남대로의 테마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만남과 화합의 장인 삼기원을 어울림터로 재현했다.

호남길은 능소와 박현수의 설화를 주제로 사랑의 섬을 조성하고, 영남길은 어사 박문수의 스토리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기원의 언덕을, 한양길은 현대적 의미를 담아 진입광장 및 음악분수 등 각각의 테마를 갖고 있다.

특히, 전통 연못과 잔디광장, 삼거리조각거리 등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남의 장소인 삼거리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넓은 벼들무대 및 광장, 도깨비장터(프리마켓), 풍덩풍덩상가, 천안이야기 벽, 벼들정원, 시민참여 숲, 잠여 정원, 숲속

자연놀이터, 야생조화원, 미니동물원 등을 꾸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공원으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중반기에 착수하고 2019년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원이므로 공원의 실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천안=이봉호기자

### 노박래 서천군수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수상



노박래 서천군수가 30일 세종·충남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2017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17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안전·행정 등 각 분야별 충청

지역을 빛낸 공로자를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이번 풀뿌리자치대상은 도내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 부문에서 지역을 빛낸 인물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노박래 군수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청렴'과 '공정'을 견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군민들에 대한 '소통'과 '섬김'을 군정 기본 철학으로 정하고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관제센터 운영 및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 도입 ▲제26회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인 개최 ▲제28회 한산모시문화제 성공개최 ▲전국태권도 페스티벌 개최 등 큰 성과를 통해 도시성장을 위한 탄탄히 다지는 데 기여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과 역대 최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노박래 군수는 수상 소감에서 "풀뿌리자치대상이란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첫 마음 변함없이 군민을 효성으로 모시면서 소통과 화합하는 군정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천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 부여군 농업경영개선 농업인 복지향상 주력

여성농업인 바우처·농업인 월급제 등 농촌사회에 활력 불어넣어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올해 농업경영 개선과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안정화 사업에 주력해 왔다.

농업경영의 어려움과 농촌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는데 다양한 정책을 추진,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동안 군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3,717농가

6,948ha ▲가족 및 축산시설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341농가 4,077천 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사업 7,125명,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723건을 가입시켜 큰 성과를 거뒀다.

군은 최근 이상기후로 원예시설물 및 작물 등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사업 가입농가의 자기부담금 20% 중 절반을 추가로 지원해 보험가입을 늘리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개

소, 농업인 자녀 학자금 1,314명, 농가도우미 14명, 농어촌육성 정보지 14,139부 보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19농가, 부여군농업발전기금 지원 33농가 등 여성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전문경영 능력을 강화하고자 세심하게 사업들을 추진했다.

농어촌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고 열악한 문화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펼쳐졌다.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한도 내에서 19개 업종의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맞춤형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3,915명을 접수 받아 사용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저축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생활비로 매월 선지급 받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여군이 보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안정을 돕고 있다.

이외 정착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사업 참여도가 낮아 참여농가에 대한 사업 만족도와 제도개선 등을 조사하여 향후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 정**

**워크숍**

구본영 천안시장은 4일 오후 2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농업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고 오후 3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아카데미 공동워크숍에 참석.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최홍욱 계룡시장은 4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

**확대간부회의**

노박래 서천군수는 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시책구상보고에 참석, 오전 11시 문예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42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리는 인구교육에 참석, 오후 5시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 마무리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부여군의회 정례회**

이용우 부여군수는 4일 오전 10시 30분 부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에 참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자교육 실시

### 계룡시, 화재 피해 최소화 민선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지난달 30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3층 시청각실에서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자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관내 14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경비·안전관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 및 윤리 의식 함양,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교육에 범법적인 산하 안세의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공동주택 관리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집의회칙 및 분쟁관련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또 오후 교육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및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논산경찰서 김홍희 생활안전계장과 계룡소방서 강신욱 예방교육팀장의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강·접도 등의 예방 및 대응교육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는 공동주택 관계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함께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자로 배부 및 각종 제도 홍보 등을 통해 다각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동정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이사회



오시덕 공주시장= 4일 오전 11시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주시한마음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오후 5시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선양위원회에 참석.

머드토피아축제교류전 참가



김동일 보령시장 = 6일까지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열리는 머드토피아 축제교류전 참가.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4일 오후 3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에 참석, 오후 4시 10분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시-서광노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

보령시보건소 음주예방 교육 '효과 있네'

보령시보건소가 절주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음주예방 교육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 결과 월간 음주를 52%에 달하고, 1일 소주 7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은 234%로 충청남도 201%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 다양한 음주예방 교육을 실시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30일에는 보령발전본부를 찾아가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 자가 측정 및 음주 폐해의 실제 사례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강의를 병행해 운영했고, 지난 달 28일에도 같은 기관을 방문해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 관련 OX퀴즈와 캠페인 등을 펼치며 바람직한 음주문화 정착 및 직장인 희식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관내 기업을 찾아가 음주상태평가(AUDIT-K) 등 선별검사를 실시해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 음주군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해오고 있고, 고위험 음주군이 많을 경우 지역 내 병원과 협의해 주기적으로 상담 및 위기를 중재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장인은 "직장 내 인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주 3회 이상 술자리에 참여했지만, 이번 올바른 음주 교육을 통해 주회로 감소하게 돼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본격 시행

서산시 주민 만족도 상승 전망

서산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현재 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해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공동용기를 사용해 배출함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 부과하는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도입 가능성을 진단하기로 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로 교부받은 카드나 비밀번호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자동 계량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특히 전국 90% 시·구에서



RFID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이 평균 30% 감량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모를 통해 시내에 소재한 H아파트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RFID기기 15대를 설치했다.

이 기기는 850여세대가 사용가능하며, 각 세대별로 합리적인 처리비율 청구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개선에 따른 주민 만족도 상승이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음식물쓰레기 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와 처리비용 부담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해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제도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만세보령장학기금 100억 원 조기 달성

보령시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만세보령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이 조기 달성되며, 장학기금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 방지 등 장학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재)만세보령장학회 이사회에서 지난 5월 시에서 추가 출연한 10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함으로써 현재까지 101억 원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시점에서 62억 원에 불과했던 장학기금이 2014년 10건 6150만원 △2015년 28건, 7억1146만 원 △2016년 22건, 9억7457만 원 등 3년여 간 39억 원을 증액,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학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장학금 기탁 과정에서 지역 기업체와 의사회, 농업 시장출장소, (사)한국에총보령지회, 관내에서 사업 시행중인 건설업체, 시 공무원, 보령시의회 의원 등도 동참하며, 깊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보령=김태성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국제교류 중추적 역할담당

제1기 시민통역 서포터즈 위촉



서산시 국제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시민통역 서포터즈가 구성됐다.

서산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및 시민통역 서포터즈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서산시 시민통역 서포터즈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제1기 시민통역 서포터즈는 영어 2명, 중국어 17명, 일본어 6명 등 총 25명이다.

이를 위해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전문가 면접심사를 진행해 선발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서산시를 방문하는 외빈 영접 및 각종 국제교류 행사 등에 참여해 통역을 지원하게 된다.

이완섭 시장은 "해외교류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꾸준한 통역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통역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시민통역 서포터즈를 선발했다."며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 활용하는 등 전문 통역인력 네트워크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공주시 적극행정 통한 쾌거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달 30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집적·집단지 악취 환경민원 해결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사혁신처 주최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능동적 업무처리와 소통, 배려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제도혁신 등을 위해 전국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천광역시 남구, 전라남도와 함께 본선에 진출, 환경자원과 이촌형 환경지도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법적 사각지대 집단적·고집적 악취환경민원 해결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수 십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정안천 생태공원 인근 도축장과 정안농공단지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서 간 협업과 소통은 물론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85%

의 악취 저감 효과와 9억 4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오시덕 시장은 "수십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고집적·집단지 악취 환경민원 해결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의 자세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소통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서면심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본선 진출 대상 기관을 선정한 후, 전문가 평가단과 현장 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수상 기관이 결정됐으며, 공주시는 대전·세종·충청권 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주=정성범 기자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정부의 예타 통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한편, 다가올 서해안 시대 보령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구체화됐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난 달 30일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기존 장항선은 충청남도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임에도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디젤기관차로 운행되는 저속철도인 상황이었으며, 전년부터 아산 신창구간은 지난 2008년 완료됐고, 익산부터 대

야 구간은 오는 2022년 복선 완료 예정으로, 누락 구간이었던 신창과 대야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비 7915억 원이 투입돼 충남 아산 신창부터 전북 익산 대야까지 118.6km 구간으로 추진될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신창부터 보령 웅천까지 78.7km 구간은 복선전철로 건설하고, 웅천부터 대야 39.9km구간의 단선 전철화 방식을 향후 국토부 내부설계 변경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전 구간을 고속복선 전철화 할 계획이다.

특히, 장항선 복선전철에 운행되는 열차도 기존 새마을 열차나 KTX 고속열차보다 승차감과 편리성이 향상된 신형 동

력분산식 고속차량 열차로, 속력이 현행 70km/h에서 150~180km/h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서울에서 보령까지 통행시간이 2시간 5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1시간 40분이나 대폭 단축된다.

앞서 김동일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김태홍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해 왔고, 지난 11월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예산결산특별위 소위 어기국회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을 차례로 만나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내년도 실시설계비 50억 원(국비)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해왔다.

보령=김태성기자

"보령시 서해안시대 주도하게 될 것"

이완섭 서산시장은 "해외교류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꾸준한 통역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통역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시민통역 서포터즈를 선발했다."며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 활용하는 등 전문 통역인력 네트워크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text describing the project's goals and featur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EST PLAN.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생에 웬수들 (MBC 오후 7시15분)



우리 서로 사랑해요... 문화센터로 나라(최수린)를 찾아가고...

미워도 사랑해 (KBS1 오후 8시25분)

행자송속속 분은 근접이벤트 분에게 개인과외를 신청하고...

케이블 영화

인터뷰 (OCN 오후 4시 20분)

모든 비용은 시간으로 계산된다!! 근 미래,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노화를 멈추고...



기 시작한다. 미애이아현 분은 인우한혜린 분에게...

의문의 일승 (SBS 오후 10시 00분)



종삼(윤근상)은 교도소를 눈 앞에 두고 돌아가지 못할 위기에 빠지고...

수상한 그녀 (채널CGV 오후 1시30분)



스무살 꽃처녀가 된 철순 할머니의 빛나는 전성기가 시작된다! 아들 자랑이 유일한 낙인...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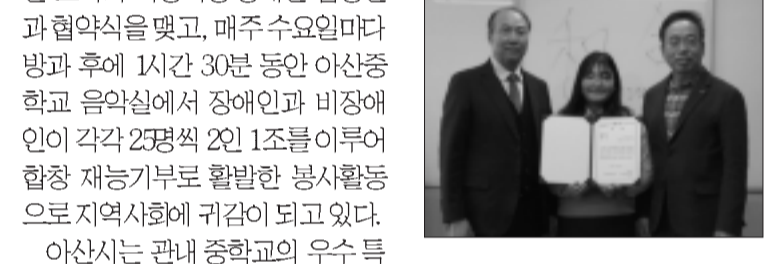
아산시 지원 '아산중 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성료

국내 유일의 소년합창단인 아산중학교 소년합창단



국내 유일의 소년합창단인 아산중학교 소년합창단이 지난달 30일, 온양예술교회 분당에서 1,0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장항고 2017 전기안전 콘텐트 공모전 동상입상 쾌거



울 4월에는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 소속의 아산아장 장애인 합창단과 협약식을 맺고, 매주 수요일마다...

오비맥주, 서울 독산동에 5호 '행복도서관' 열어

지난달 30일 김도훈 사장 등 원공 전 마무리 봉사활동 진행



오비맥주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지역아동들의 방과후 학습공간인 '해피 라이브러리(행복도서관)'를 연다.

나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피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애인복지관, 사랑의 인형극 페스티벌 공연 성황리 진행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여섯째 공연으로 구성된 가온누리 인형극단이 '제회 사랑의 인형극 페스티벌'에 참여 공연을 선보였다.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교육청 노사, 어려운 이웃 97가구에 연탄 및 생필품 전달**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일 오전 10시, 대전 중구 대서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 97가구에 연탄 2,200장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회 총회 개최**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회' (회장 한남대 LINC+사업단장 성인하, 이하대산협)가 대전지역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아산폴리텍대, 노인요양원 휴게시설 기증**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철)는 노인요양원에 휴게시설을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 아산캠퍼스 산업설비자동화학과 학생들은 아산시에 위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정애시니어빌에 교수들의 지도하에 수업에서 배운 설비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이외의 4점을 기증했다.



**공주대, 2017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료식** 공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희수)는 지난 30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2017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대학원)수학준비과정, 모국어해(가을)과정 수료식 행사를 가졌다.



**현대제철 한누리 봉사단, 빈곤층 가정에 연탄·기정용 등유 전달**  
현대제철 한누리 봉사단은 지난 11월 30일 지역 에너지 빈곤층 14가구를 선정해 연탄 3000장과 기정용 등유 800리터를 전달했다.



**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 공간정보의 미래를 밝히다**  
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민)는 지난 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7회 도시공간정보컨퍼런스'에 참가해 공간정보의 현재와 미래를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 한밭대학교, 2012년부터 시작해 6회째 열리고 있어 개교 90주년 기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1일 오전 10시부터 '개교 90주년 기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2012년부터 시작해 6회째 열리고 있는 '한밭대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한밭대 학생, 교직원 등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서 독거노인과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기 행사로, 올해는 한밭대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예년보다 풍성하게 마련됐다.

이날 김장 나누기 행사에서는 송하영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와 직원,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배추 1,400kg으로 김장김치를 담갔다.



특히 이 배추 중 일부는 지난 11월 28일(화) 한밭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0여명이 충북 옥천의 농가에서 직접 채취해 온 것들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산내종합사회복지관 등에도 김치를 전달하는 등 총 120여명에게 정성이 가득 담긴 '사랑의 김장김치'를 선사했다.

송하영 총장은 김장 담그기에 나선 학생들에게 "이웃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다. 오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를 통해 행복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작년에는 500kg 정도의 배추를 준비했었지만 올해는 개교 90주년을 맞아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1,400kg의 배추를 준비했다. 한밭대는 지역의 중심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 김홍장 당선시장, 출판기념회 열어



은 결론'이 말해주듯 2014년부터 제2대 당선시장으로 헌신하며 '당진형 주민자치' 모델을 정립, 실현해왔으며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당진발전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커진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주민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제8, 9대 충남도의원, 도의회 부의장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노무현재단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지속가능 경영부문(2017), 지방자치 행정대상(2016),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일자리 분야 우수상(2015) 등을 수상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단국대, 포항 지진 피해지역 찾아 봉사활동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 재학생과 교직원 35명으로 구성된 단국대 사회봉사단이 지난 1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동대학교를 찾아 지진 피해 건물 잔해와 쓰레기 등을 수거해 하치장으로 옮기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재권 단국대 총학생회장(단국대 복지조경학과 4년)은 "지진 피해로 학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한동대 학생들이 하루 빨리 학업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우리 대학에서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따뜻한 손길을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이동호기자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 '어려운이웃 연탄나누기'** 새마을운동청양군지회(지회장 김보연)는 지난 1일 남양면 봉암리와 백곡리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 연탄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 동구 일출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미래 동구의 희망이자 주역 될 일출장학생들에 장학증서 수여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1일 가오도시관 시청각실에서 2017년도 일출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장학재단 임원 및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동구의 희망이자 주역이 될 일출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장학장대상(2016),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일자리 분야 우수상(2015) 등을 수상했다.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적우수 학생 20명, 저소득 가구 20명, 특기장학생 4명을 선발하여 대학생은 각 200만 원, 고등학생은 각 1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을 전달했다.

일출장학금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48명의 학생에게 3억8천3백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특히 국보환경(대표 임종빈)과 호철 선사인(대표 이진태)에서 각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의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영호기자



## 한밭새마을금고, 제51차 임시총회

한밭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 오후 2시 MC현빌딩 아트홀에서 천순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대의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임원 임기만으로 인한 임원선거를 위해 개최됐고, 기념식 행사로 개최, 국민의례, 이사장 인사, 성원보고, 부의안건심의로 제1호 안건 임원선거로 진행됐으며, 임원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송영동, 이용민씨가 한밭새마을금고 감사로 당선됐다.

이어 기타토의, 회의록(의사록)서명 날인자 지정, 폐회의 순으로 마감했다.

송병배기자



**취화성건설이엔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학금 전달** 취화성건설이엔지 대표이순호(가)는 지난 30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학금 500만 원을 탕정된 행복키움추진대(담당 송현순)에 기탁했다.

## 순천향대 정홍중씨 '2017 대한민국인재상' 수상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직업치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정홍중씨(사진, 남, 25세)가 2017 대한민국인재상에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과 함께 25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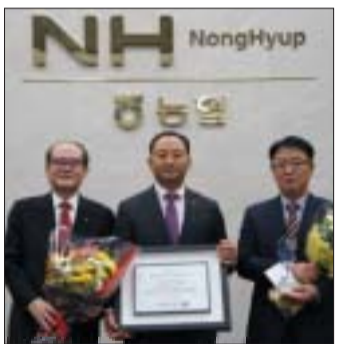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7 대한민국인재상은 총 100명을 선발해 지난 3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전국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40명, 청년일자리 10명 등 총 100명이 선발돼 이들 수상자 중 한명이다.

대학생으로는 보기드물게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기를 상용화하기 위해 선배와 함께 쉼벨트를 창업했고, 동시에 예비창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홍중씨는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평소생각은 선배와 함께 창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정씨는 창업은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아이디어 구현, 임상시험, 마케팅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분은 정봉근 학과 지도교수와 같은 학과 후배인 박기람, 신정은 씨에게도 고맙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충남농협, 농산물 우수 생산자조직 시상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찬형)는 1일 충남본부 대강당에서 '2017년 하반기 우수 생산자조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전 회원 59개 농가의 수확전 농가별 당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여 회원농가간 경쟁의식 고취를 통해 고품질 방울토마토 재배에 힘쓴 세도농협(조합장 백승민)과 방울토마토 공선출하회(회장 성광모)가 우수 조직으로 선정됐다. 수상 조직에는 우수 생산자조직 시상탑 및 인증서와 시상금이 수여되고 '우수 공선출하회 연도대상' 후보자격을 부여한다.

내포=김정한기자

## 인사

- 한밭대학교
  - ▲ 산학협력담당 차동진 교수
  - ▲ 공과대학장 이종곤 교수
  - ▲ 건실환경조경대학장 윤종호 교수
  - ▲ 도서관장김희수 교수



기자 수첩



이정복  
기자

“식장산에 전망타워가 건립되면 대전의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가 될 뿐 아니라 대청호와 계족산, 만인산을 잇는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달 17일 대전의 랜드마크 식장산 타워 건립을 주제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제65차 동구 포럼’에서 밝힌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의 말이다.

요즘 대전의 랜드마크 건립을 둘러싸고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 간의 신경전이 뜨겁다. 대전의 랜드마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꽤 오래된 얘기지만 최근 이 논의가 이치럼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는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대전랜드마크를 유치해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전의 백년지대계 아니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대전 랜드마크 입지를 선불리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현재 대전의 랜드마크 건립에 가장 열정적인 지역은 바로 동구다. 동구는 최근 한현택 구청장을 필두

로 전 공무원들이 동구 대상으로 위치한 식장산에 가장 대전타워를 건립해야 한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대전 랜드마크 식장산 타워 건립’을 주제로 열린 동구포럼에는 포럼회원, 주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한 청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식장산 타워는 최근 거론된 계획이 아니다. 2010년 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중기, 단기, 장기 단계별 계획이 나왔다. 현재 1단계로 전망대를 착공했고 내년 6월 전에 편리하게 식장산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다. 2단계로 마천루 건립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장산은 자연적 해발고도가 이미 600m다. 여기에 200m 높이의 타워만 올려도 서울 N타워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된다. 사업규모도 적어도 600~700억 원 정도가 되어 할 것”이라며 “꼭 쿠비, 시비가 없어도 민간자본을 끌어드릴 수도 있다. 그런 고민은 장기적으로 해도 된다. 지금은 여론을 형성하고 기반을 쌓아야 한다. 차근차근 추진하면 충분히 대표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청장이 식장산에 랜드마크 건립의 최적지로 꼽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상징성이다.

식장산은 해발 598m의 대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대전 전역은 물론 옥천, 금산, 영동, 무주 등 인접지역들과 조화를 이루는 장관 또한 명품이라는 것이다.

또 이곳에 대전타워가 지어지면 대전의 위용을 뽐낸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가 될 뿐 아니라 천혜자원 대청호와 계족산, 만인산이 연결돼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전은 전국적인 교통중심지의 위치와 세종정부청사라는 인근 지역 명성에 힘입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한 청장의 주장이다.

대전상징타워 그리고 정치

하지만 한 청장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식장산 대전타워 건립엔 적잖은 과제도 있다. 식장산의 경우도 시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데 군사보호시설,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체 등 법률적 제한문제도 선결해야 한다.

또 대전랜드마크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지역은 바로 중구다. 상징탑 건립 장소로 보문산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보문대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때 대전의 명사로 불리우며 대전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손꼽았던 보문산은 둔산과 유성의 신도시개발과 함께 원도심이 침체에 접어들면서 보문산의 명성도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 1월 마련한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 계획안에 전략사업으로 대대시구에 ‘보문스카이힐스(대전랜드마크 타워) 건립’ 방안을 내놓았다.

보문산(457.6m) 중턱에 위치한 보문대(보문산 전망대)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보문대가 대전 전체의 도시를 조망하기엔 한계가 있어 대전의 명산이자 모산인 보문산에 랜드마크 기능이 가능한 신규 전망탑 건립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계획은 보문대 부지(480m²)를 활용해 45m 높이의 전망탑에 스카이트랙, 편의시설, 부대시설,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구도 최근 보문산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문산에 대전랜드마크 타워를 유치해야하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그동안 대전에서 소외론을 제기하면서 대전시에 서운함을 토로해온 대덕구도 대전랜드마크 유치를 뛰어들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최근 한 지방일간지 기고문 통해 “회덕의 입지적 요건과 역사를 논하면서 빼놓기 어려운 곳이 바로 계족산이다. 회덕을 품고 있는 계족산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자연이 훼손

되지 않았고 국내 관광 100선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계족산항투길은 매년 100만 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또 최근 힐링에 관한 트렌드임을 고려하면 상징물과 연계 관광을 고려한 입지여건으로는 대전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고속도로가 인접해 외부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랜드마크 입지로도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의 정신이 깃들인 회덕이 소재한 대덕구가 대전의 랜드마크 입지로서 그 상징성이나 향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용 차원에서 최적이라는 것이 박 청장의 주장이다.

대전 랜드마크 건립의 필요성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한다. 서울에 가면 남산N타워가 있고, 부산에는 용두산타워, 대구에는 83타워 등이 있다. 이들 타워는 이 지역의 명소이자 관광수익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전도 이제는 대전을 대표할 만한 타워하나쯤 갖고 있을 때가 됐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대전에 내로라할만한 상징물이 없다는 것은 대전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다.

이제 대전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전랜드마크는 건립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건립도 하기전부터 자치단체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며 경쟁하는 모습은 불행사나다. 대전랜드마크 건립 문제는 정치학적인 문제 또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대전발전이라는 큰 프레임 속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장소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대전랜드마크를 건립하려면 앞으로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열악한 대전시 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때문에 대전의 각 자치단체들은 대전랜드마크를 두고 자신들의 입장만 외칠 게 아니라 서로 협치하며 대전발전이라는 대응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만은 안 된다

대투 논란



김현태  
논설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이다.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시달릴적이다. 이번에는 미국이 송유관을 막아라고 주문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져도 어랑곳 하지 않고 미사일개발에 할안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핵을 장착하여 전쟁불사의 위기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이다. 이른바 핵전쟁을 염두에 둔 미사일개발이라는 그 충격과 파급효과는 날로 커지고 있다.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설왕설래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이번에 쏘아낸 미사일이 성공적인 발사라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틀만 나면 미사일을 쏘아대며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응은 극도로 격앙되어 있다. 트럼프의 막말은 여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sick puppy)’라고 불렀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후다. 김정은 이에 질세라 트럼프를 ‘맹탕한 노인’이란 말로 반격했다. ‘로켓맨’에서부터 ‘병든 강아지’에 이르기까지 말싸움이 극단을 치닫고 있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어찌 보면 김정은의 말이 깊어만 가는 듯하다.

당사국인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면 도발의 심각성을 심각하면서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어 난리가 아닌데 정작 당사자들인 우리들은 생각보다 차분하다. 그러면서도 전쟁에 대한 입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접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 미사일을 미국이 그냥 놔두고 불일이 없을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평화를 바라지만 전쟁불사의 강경입장으로 돌아선다면 자칫 엄청난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팽배하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도 나서서 틀만 나면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독단적으로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은 이에 어랑곳 하지 않고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신형잠수함 구축소식까지 들리니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다. 불안감이다. 북한의 전력이야 정도인데 세계 10위권의 국방예산을 쓰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지 무력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전략자산 뒤에 의지하여 안보를 말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어딘지 빈궁하다. 늘 신무기 구입한다는 말만 무성하다. 당

장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구축해나가며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최근에는 총격적인 보고서까지 등장하여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미사일 타격 표적으로 세계 15곳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가 11월 22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노리는 표적은 민간·군 시설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의 북한 정권 장악 이래 북한 관영 매체들로부터 나온 보도 내용을 분석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핵이나 특정되지 않은 무기로 노리는 표적은 서울·부산은 물론 미국 본토, 미 하와이주,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에 포함된다. 평택, 창원, 대구, 충남 계룡시의 계룡대도 대상이다. 핵미사일 타격 대상으로 이런 지역을 선정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 더욱 헬안이 되어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이제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때를 맞춰 미국 F-22 랩터 6대가 연합훈련차 방한했다. 미 전략무기 속속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스라는 첨단 기능이 들어간 F-22 랩터는 상대의 레이더와 모든 탐지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전투기로 오산에서 평양까지 10분이면 도달한다. 이외에도 각종 최첨단 전략무기들이 전개된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고강도 대응조치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참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는 형국이다.

전쟁이 나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너무나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유엔연설을 통해 ‘만일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 놓았다. 이에 열 받은 김정은은 “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대응 성명까지 발표하며 맞서고 있다. 일말의 대화의 여지도 없이 극한을 치닫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마치 샌드위치인 세가 되고 있다.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의 독단적인 행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미양국의 전략적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감은 상존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런 북한의 행태에 극도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늘 전쟁과 대테러 선상에서 핵폭탄을 의심하고 있는 형국이 마냥 불안한 불안한 뿐이다.

전쟁이 나면 그동안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승자는 없다. 남북한 모두 초토화될 것이다. 이 같은 불행이 닥친다면 이는 한마디로 재앙이자 비극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한반도가 불행과 공포의 장으로 변하는 전쟁은 안 된다. 미국과 북한과의 말싸움, 감정싸움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새벽부터 눈을 뜨면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이리저리 정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행정장계를 울림 개체를 앞두고 비상이다.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전쟁으로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찬란한 금자탑이 전쟁으로 무너질 수 없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평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경한 대립을 넘어 민족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와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김석환 홍성군수 주요 사업장 방문 의견 청취

김석환 홍성군수는 1일 오전 11시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나누면서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약속했다.

홍성군은 미개발 토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3%의 공정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12월 도로 아스콘포장 및 차선도색, 내년 1월 확장도로 원도심 예정이며, 2월 부지조성 공사 준공, 6월 환지처분 및 도로개발 사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군은 고삼리 668-2 일원에 46854㎡(14.198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38필지 중 37필지의 체비지 매각을 완료하였고, 매 매각된 주차장(617㎡)은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역재방죽지구 주거지역의 도시개발로 주민들의 주거공간 확보와 편의이 증진됨은 물론 단절되었던 신동아 아파트와 주공 1차 아파트가 연결되어 접근성 향상 등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홍성=김정환기자

기고



정학진

청양을 사랑하는 마음연구소장

정리한다.

필자는 공직생활 중에 3년 만기 정기적금을 들곤 했다. 정기적금을 들어야 목돈이 필요 할 때 효자 돈으로 요긴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적금을 탈 때에는 사용 할 곳이 생기기도 한다.

이를 떼면 타던 차를 바꾼다든지, 애들의 학자금에 보탠다든지, 아니면 아픈 곳이 있어 병원에 가야하는 일에 쓰이곤 했다.

다행이다. 적금이 아니면 어디에 서라도 빌려서 처리해야 만 하는 형편이 아닌가?

그래서 슬관처럼 매년 10만원씩 적금을 들었다.

재직 중에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12년 가을이다.

그동안 공직이라는 핑계로 아내와 같이 여행 한번 제대로 했던 기억이 없어 퇴직하면 여행 경비로 쓰려고 20만원씩 들어가는 3년 만기 적금을 들었었다.

2015년 말 명예퇴직을 결심하고 나니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해 드린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

못다 푼 숙제

를 스쳤다.

그래 내가 그동안 고향에서 공직에 몸담고 아이 둘을 두고 살아 온 것은 부모님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안계시지만 퇴직하기 전 그동안 소홀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다.

그래 부모님의 향락열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구나 하는 생각에 2010년부터 기금으로 모금을 하는 정양군의 인재육성 장학금에 기탁 하지는 나의 마음을 아내와 상의를 했다.

여보, 내가 사실은 퇴직을 하면 당신과 같이 유럽여행을 하려고 적금을 든 것이 있는데 만기가 다 되네 여행을 다음에 기기로 하고 이 적금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금에 기탁하면 어떨까?

정년 2년을 앞두고 퇴직을 한다고 하지, 만기된 적금을 타서 장학금을 낸다고 하니 좋아 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나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상의 할 때와 같이 흔쾌히 동의 해주었다.

고마웠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그 해 말 나는 퇴직을 했다.

퇴직 후 2016년 중순으로 기억한다. 200여원의 장학기금을 완성하고 기탁자인 나는 명예의 전당 개관식에 초청을 받았으나 개인사정이 있어 참석치 못했다.

그 후 2017년 초에 명예회관에 갈 기회가 되어 가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가

그를 보는 순간 내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울컥했다.

그리고 집에 와 아내에게 말 했다. 아내도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며 좋아했다.

퇴직 후 아내와 같이 유럽여행을 하는 나의 숙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

연말이 되니 회식이 다 망년회다 사회가 좀 뜬 기분이다.

이러 할 때에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생각하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생각하며 미래의 가치를 가꾸자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린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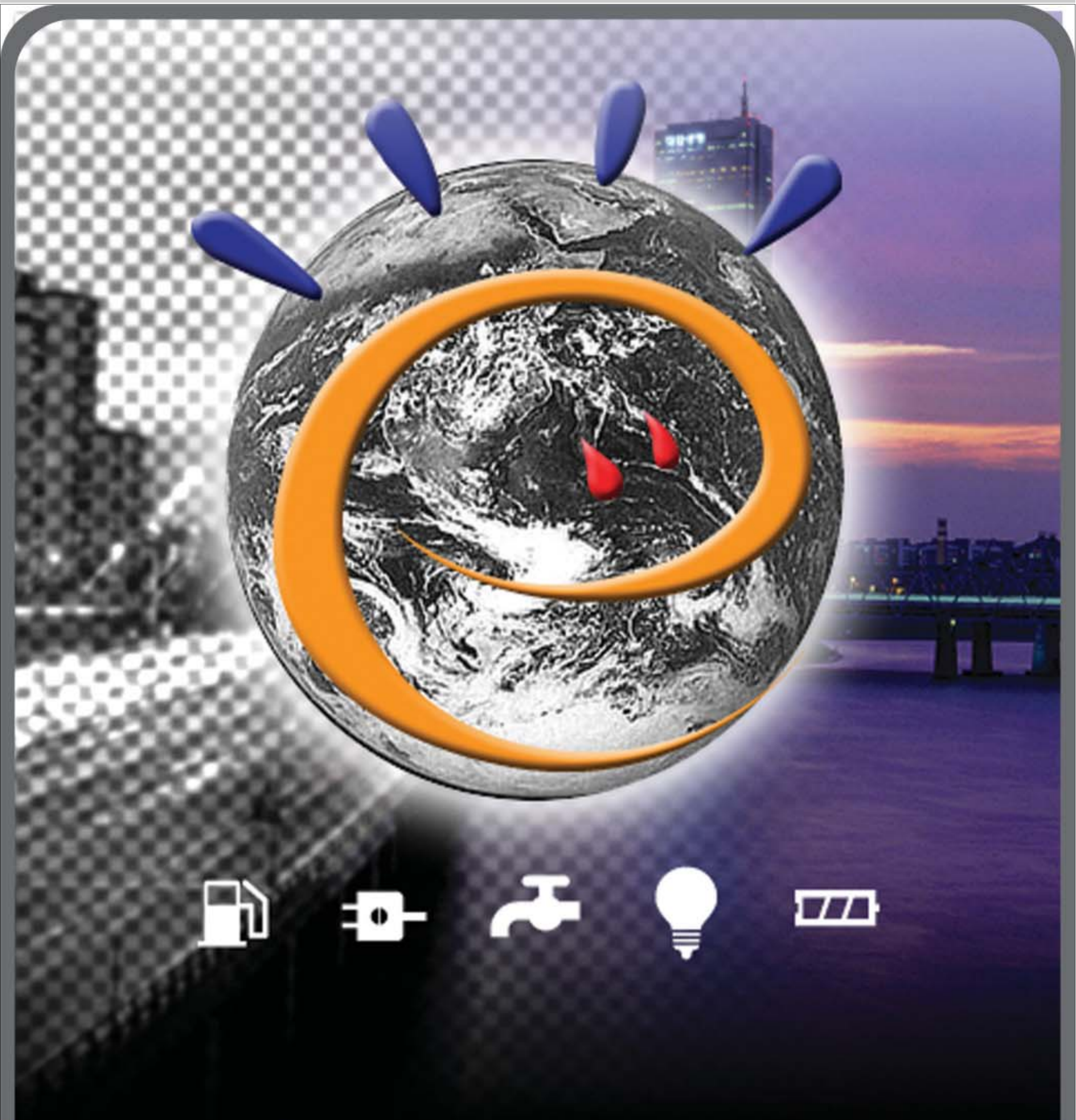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젊은생각·바른신론

2008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인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인내 042)538-1602	광고신청인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장비산업기술진흥재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DS 주식회사 대성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순용

 KR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KR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Yeosan Poultry Cooperative

 KR 한국농어촌공사 금산지사

금산공판장G마트